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서비스 수출 실태와 경쟁력

목 차

■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서비스 수출 실태와 경쟁력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서비스 수출 실태와 경쟁력	3
3. 시사점	10
<부록>	12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이 부 형 이사대우 (2072-6306, leebuh@hri.co.kr)

동북아연구실 : 조 호 정 연구위원 (2072-6217, chjss@hri.co.kr)

Executive Summary

□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서비스 수출 실태와 경쟁력

■ 개요

OECD 국가들의 서비스 수출은 2014년 3.5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 수출(상품과 서비스 합) 증가에 대한 서비스 수출의 기여율도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4년 59.8%를 기록하는 등 수출 확대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총 수출 중 서비스 수출 비중이 2015년 3/4분기 누적 기준 15.1%로 OECD 평균인 29.2% 대비 절반 수준이고 수출 증가에 대한 기여율도 낮다. 이에 한국 서비스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서비스 수출 실태와 경쟁력

한국의 서비스 수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BPM6(Balance of payments manual 6) 기준의 국제수지 상 서비스 수출 통계를 이용하여 OECD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 3/4분기까지(단, 서비스 수출 항목별 분석은 2006~2014년까지임)이며 분석 대상은 규모, 증가 속도, 수지, 산업별 구성, 국제 경쟁력의 5개 부문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OECD의 주요 경쟁국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액은 2006년 572억 달러에서 2014년 1,121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의 2006~2014년 평균 서비스 수출액은 874억 달러로 OECD 평균인 884억 달러에는 약간 하회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약 15%, 상품 수출 비중이 높은 독일 대비로도 약 39% 수준으로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한국은 OECD 내 서비스 수출 순위도 12위로 상품 수출 순위인 4위에 비해서 낮고 순위 간 격차도 주요 수출국들 중 가장 컸다.

둘째, 한국의 서비스 수출 증가율도 최근 OECD 평균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2006~2014년 연평균 증가율이 8.8%로 OECD 평균인 6.2%보다 높았다. 그러나 최근 5년('10~'14년) 동안 한국의 서비스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이전 5년('06~'10년) 평균인 9.8%에 비해 2.1%p 하락했다. 하지만, OECD 국가는 동기간 6.3%에서 6.1%로 0.2%p 하락에 그쳤다. 이는 한국의 서비스 수출 중 운송, 금융 서비스가 최근 5년간 마이너스 성장했고 건설, 보험 서비스의 증가폭도 크게 낮아진데 기인한다.

셋째, 한국은 서비스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OECD 국가는 흑자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수지는 2006~2014년 평균 94억 달러 적자였지만, OECD는 105억 달러 흑자였을 뿐만 아니라 흑자 규모도 2009년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수출 항목별로 보면, 한국은 기타사업 서비스의 수지가 최근 5년간 평균 -114.3억 달러로 적자폭이 가장 컸고 여행 서비스 -71.0억 달러, 가공 서비스도 -59.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넷째,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운송, 건설 등에 편중되어 있고 서비스업의 새로운 수출 동력인 ICT기반 서비스 수출 비중도 OECD 평균보다 크게 낮다. 한국과 OECD 모두 운송, 여행, 기타사업 서비스가 수출의 약 70%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운송 서비스가 2014년 기준 33.1%, 건설 서비스도 16%를 차지하는 등 일부 산업에의 쏠림이 강하다. 또한, 한국은 UN 등에서 서비스 수출 확대의 원동력으로 꼽는 ICT기반 서비스 수출 비중도 2014년 기준 29.7%로 OECD 평균인 43.3%에 비해 13.6%p 낮았다. UNCTAD는 ICT기반 서비스를 11개의 서비스 수출 항목 중 통신컴퓨터정보, 보험, 금융, 지식재산권사용료, 기타사업 및 개인문화여가 서비스의 6개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2014년 기준 통신컴퓨터정보, 금융 서비스의 수출 비중이 각각 2.7%, 1.3%로 OECD 평균인 8.9%, 6.5%에 비해 낮다.

다섯째, 한국은 서비스 무역의 11개 항목 중 6개에서 비교 열위를 보이는 등 수출 경쟁력이 OECD에 비해 낮다. 한국 서비스 무역의 무역특화지수(TSI)를 계산해 보면, 건설 서비스는 2010~2014년 평균 0.065, 운송도 0.036으로 비교 우위를 보였고, 통신컴퓨터정보와 개인문화여가 서비스도 무역특화지수가 소폭 상승하며 비교 열위에서 중립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가공, 여행 서비스 등 5개 산업의 비교 열위가 지속되고, 금융 서비스도 비교 열위로 전환됐다. 한편, 수출 경쟁력만을 따로 조사한 현시비교우위(RCA) 지수도 건설, 운송, 가공 서비스만 지수가 1보다 커 경쟁력이 높았고 나머지 8개 항목은 수출 경쟁력이 OECD 국가 대비 낮았다.

■ 시사점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 제조업 중심의 차별적 지원 정책 개선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성장을 꾀해야 한다.** 주요 서비스업의 현안 해결 등으로 국내 서비스업의 글로벌 경쟁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업 육성 정책을 부문별로 차별화함으로써 서비스업 부문 간 균형 성장을 촉진시켜야 한다.** OECD 국가 대비 비교 열위인 금융, 기타사업 서비스 등에 대한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 서비스'와 같이 제조와 서비스의 연계성 강화, 신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 등 수출 확대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산업융합화 촉진을 통한 제조+서비스가 통합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스마트 데이터, 핀테크 등 신 서비스 시장의 빠른 확대에도 대응해 나가야 한다. **넷째,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하고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유인책도 강화하여 내수 시장을 키움으로써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규제 시스템 개선 등으로 융합신산업의 시장화를 촉진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등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유인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다자 및 양자간 FTA 활용도도 제고해야 한다.**

1. 개 요

○ OECD 국가에서 서비스 수출은 2014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수출 확대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음

- OECD 국가의 서비스 수출 규모가 2014년 3.5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총 수출 중 서비스 비중도 약 29%로 상승

· OECD 국가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2006년 2.2조 달러에서 2014년 3.5조 달러로 연평균 6%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이에 OECD 국가의 총 수출 중 서비스 수출 비중도 2011년 26.4%에서 2015년 3/4분기 누적 기준 29.2%로 상승

- 특히 OECD 국가들의 경우, 총 수출 증가액 중 서비스 수출의 기여율이 2010년 이후 지속 상승

· OECD 국가의 총 수출 증가액(상품+서비스 수출 합계) 중 서비스 수출의 기여율은 2010년 이후 지속 상승하여, 2014년에는 59.8%로 상품보다 높아짐

· 서비스 수출은 2009년, 2012년, 2015년(3/4분기 누적)의 총 수출이 감소했던 기간에도 수출 증가세가 유지됐거나, 수출 감소폭이 상품 수출보다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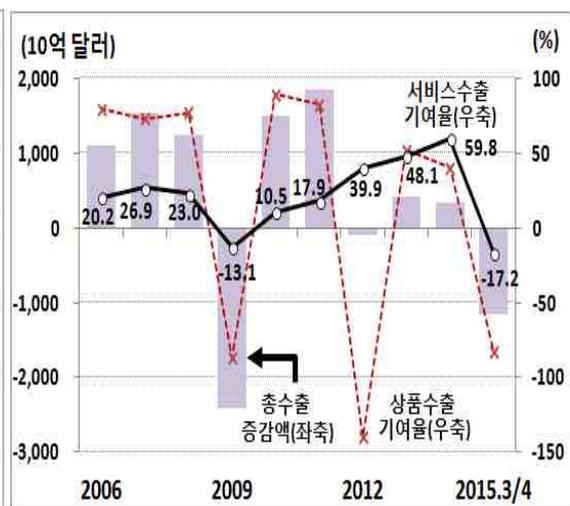
< OECD 국가의 서비스 수출액과 총 수출 중 서비스의 비중 추이 >



자료 :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 : 서비스 부가가치는 평균이며, 수출액은 OECD 국가(멕시코는 제외)의 합임.

< OECD 국가의 총수출 증감액과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기여율 추이 >



자료 : OECD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주 : 총수출 증감액은 국제수지 상 상품과 서비스 수출 합계이며, 멕시코는 제외.

- 한국의 총 수출 중 서비스 수출 비중이 정체를 면하며 OECD 평균과의 격차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수출 증가에 대한 기여율도 낮음
 - 한국은 총 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로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한국도 서비스 수출이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총 수출 중 서비스 비중은 2015년 3/4분기 누적 기준 15.1%로 OECD 평균인 29.2%의 절반 수준
 - 특히, 한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06년부터 '14년까지 0.3%p 증가에 그친 반면, OECD 평균은 동기간 2.8%p 상승하며 격차가 더욱 확대
 - 또한, 총 수출 증가액 중 서비스 수출의 기여율도 상품 수출보다 낮아 수출 동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의 총 수출 증가액(상품+서비스 수출 합계) 중 서비스 수출의 기여율은 상품 수출보다 낮음
 - 다만, 2014년은 상품 수출 감소에도 서비스 수출은 증가하면서 기여율이 높았음
- 이에 한국의 서비스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 한국의 서비스 수출액과 총 수출 중 서비스 비중 추이 >



자료 : OECD,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의 총수출 증감액과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기여율 추이 >



자료 : OECD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주 : 총수출 증감액은 국제수지 상 상품과 서비스 수출의 합계임.

2.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서비스 수출 실태와 경쟁력

- 한국의 서비스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규모, 성장 속도, 수지, 산업별 구성 및 경쟁력의 5가지 부문에 대해 OECD 국가 평균과 비교를 통해 살펴봄
 - (분석 방법) 한국과 OECD 국가 평균 간 서비스 수출을 규모, 증가 속도, 수지, 산업별 구성 및 경쟁력을 비교
 - 우선, 한국과 OECD 국가 평균 간 서비스 수출 규모, 증가 속도, 수지, 산업별 구성을 비교
 - 다음으로 한국의 서비스 수출 경쟁력을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통해 평가함
 - (자료) 한국과 OECD의 서비스 수출은 BPM6(Balance of Payments Manual 6 기준¹⁾의 국제수지를 활용
 - 서비스 수출 규모, 증가 속도, 수지를 2006~2015년 3/4분기까지의 BPM6 기준 OECD 국제수지 통계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함
 - 국제수지 상 서비스 수입에 해당하는 서비스 수출은 가공, 운송, 여행, 건설, 보험 서비스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됨
 - 서비스 수출의 11가지 항목별 분석은 BPM6 기준 UNCTAD 통계를 활용하며 분석 시점은 2006~2014년까지임
 - OECD 평균 산출시에는 연도별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 국가는 제외하였음

< 한국의 서비스 수출 구조 분석들과 비교 지수 >

대구분	중구분	지수
현황	① 규모	- 서비스 수출 규모, OECD내 서비스 수출 순위
	② 증가 속도	- 서비스 수출 증가율, 서비스 수출 항목별 연평균 증가율
	③ 수지	- 연간 서비스 수지 규모, 서비스 수출 항목별 수지 규모
	④ 산업별 구성	- 서비스 수출의 산업별 구성비 - ICT기반 서비스 수출 비중
경쟁력	⑤ 경쟁력	- 무역 경쟁력: 무역특화지수(TSI) - 수출 경쟁력: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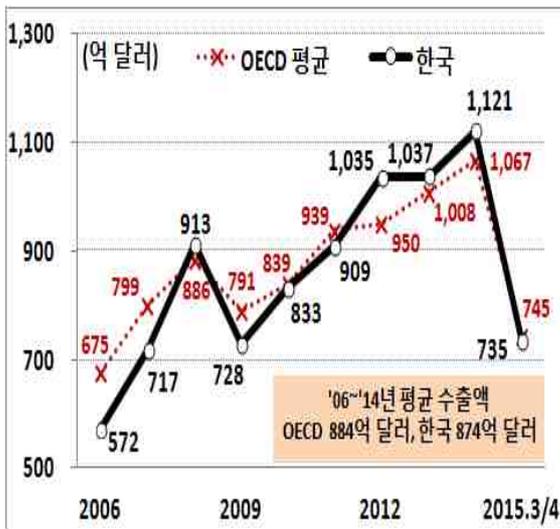
1) IMF는 2010년 1월 세계화, 경제 환경 변화, 금융혁신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수지 매뉴얼인 BPM6를 공표하였음.

① 규모

○ 한국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미국, 독일 등 OECD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미약한 수준임

- 한국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지속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함
 - 한국의 서비스 수출액은 2006년 572억 달러에서 2014년 1,121억 달러로 약 2배 증가함
 - 한국의 2006~2014년 평균 서비스 수출액은 874억 달러로 OECD 평균인 884억 달러보다 약 10억 달러 적지만 2012년 이후로는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함
-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미국, 독일 등에 비해 규모가 여전히 미약하고 OECD 내 서비스 수출 순위도 12위로 상품 수출 순위와 격차가 큼
 - 한국의 최근 5년간 평균 서비스 수출액은 최대 서비스 수출국인 미국의 약 15%, 상품 수출 비중이 높은 독일 대비로도 약 39% 수준에 불과함
 - 특히, 한국의 OECD 내 서비스 수출액 순위는 12위로 상품 수출의 4위보다 크게 낮고 주요 수출국 중에서도 순위 간 격차도 가장 컸음

< 한국과 OECD 국가의 서비스 수출 규모 추이 >



자료 :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 : OECD 평균에서 멕시코는 제외.

< OECD 국가의 최근 5년('10~' 14년)간 서비스 수출액(억 달러)과 순위 >

순위	국가	금액	상품수출 순위
1	미국	6,492	1위
2	영국	3,164	8위
3	독일	2,538	2위
4	프랑스	2,411	5위
5	일본	1,422	3위
6	네덜란드	1,388	6위
7	스페인	1,251	12위
8	아일랜드	1,118	19위
9	벨기에	1,093	11위
10	이탈리아	1,091	7위
11	스위스	1,089	10위
12	한국	987	4위
	OECD 평균	961	2,943

자료 : OECD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주 : OECD 내 상품과 서비스 수출 순위임.

② 증가 속도

○ 한국의 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는 높지만 상승 속도는 빠르게 둔화되고 있음

- 한국의 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는 높지만 최근 5년간('10~'14년)은 이전 5년('06~'10년) 간에 비해 상승 폭이 하락

·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2006~2014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8.8%로 OECD 평균 6.2%보다 높았음

· 그러나 최근 5년('10~'14년)동안 한국의 서비스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이전 5년('06~'10년)의 9.8% 대비 2.1%p 하락한 반면 OECD 평균은 6.3%에서 6.1%로 0.2%p 하락에 그쳤음

- 한국의 서비스 수출 증가세 둔화는 운송, 금융 서비스 등의 수출이 감소했고, 건설, 보험 서비스의 증가율이 하락한데 기인

· 한국의 서비스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최근 5년('10~'14년)간 통신컴퓨터정보 29.2%, 개인문화여가 24.6%, 기타사업 15.4%, 여행 15.1% 등으로 빠르게 성장

· 반면, 운송, 금융 서비스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6%, -3.8%로 수출액이 감소했고 건설과 보험 서비스도 연평균 증가율이 한자리 수로 하락

< 한국과 OECD 국가의 서비스 수출 증가율 추이 >



자료 :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 : OECD 평균에서 멕시코는 제외.

< 한국과 OECD 국가의 서비스 수출 항목별 연평균 증가율(%) >

항목	'06~'10년		'10~'14년	
	OECD	한국	OECD	한국
가공	7.7	1.0	7.0	11.0
운송	4.9	10.8	3.2	-2.6
여행	4.0	15.9	5.9	15.1
건설	7.3	14.4	6.1	9.3
보험	4.6	17.2	6.5	7.3
금융	4.0	5.0	5.4	-3.8
통신컴퓨터정보	7.5	9.2	7.9	29.2
지식재산권 사용료	7.0	10.8	5.7	12.7
기타사업	7.1	3.8	7.7	15.4
개인문화여가	4.2	15.7	10.0	24.6
정부	0.3	-9.4	2.5	1.9

자료 : UNCTAD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③ 수지

○ 한국은 서비스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OECD 국가는 흑자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의 서비스 수지는 2006년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OECD국가는 서비스 수지 흑자 규모가 꾸준히 확대

- 한국의 서비스 수지는 2006~2014년까지 평균 9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OECD 평균은 105억 달러 흑자를 기록
- 특히, OECD 국가의 서비스 수지 흑자 규모는 2009년 이후 계속 늘어났고 2015년에도 3/4분기까지 107.5억 달러를 기록함

- 한국의 서비스 수지 적자 지속은 기타사업, 여행, 지식재산권 사용료 및 가공 서비스 부문에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

- 한국은 최근 5년('10~'14년)간 기타사업의 수지가 평균 -114.3억 달러, 여행 -71.0억 달러, 가공 -59.5억 달러, 지식재산권사용료 -49.2억 달러 순으로 적자를 기록했지만 건설은 137.0억 달러, 운송도 77.6억 달러 흑자를 달성
- 한편, OECD국가는 금융, 여행, 통신컴퓨터정보 서비스 순으로 흑자폭이 컸음

< 한국과 OECD 국가의 서비스 수지 추이 >



자료 :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 : OECD 평균에서 멕시코는 제외.

< 한국과 OECD 국가의 최근 5년간 서비스 수출 항목별 수지(억 달러) >

항목	'10~'14년 평균	
	OECD	한국
합 계	126.0	-84.0
가공	5.7	-59.5
운송	-3.0	77.6
여행	26.5	-71.0
건설	8.3	137.0
보험	-4.3	-2.1
금융	59.7	-4.1
통신컴퓨터정보	22.3	1.3
지식재산권 사용료	17.5	-49.2
기타사업	1.8	-114.3
개인문화여가	-1.6	-1.0
정부	-0.9	1.3

자료 : UNCTAD, 한국은행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④ 산업별 구성

-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운송, 건설 등에 편중되어 있고 서비스 수출 동력인 ICT기반 서비스 수출 비중도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음
 -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OECD에 비해 편중도가 큼
 - 한국, OECD 모두 운송, 여행, 기타사업 서비스가 수출의 약 70%를 차지
 - 그러나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운송 비중이 2014년 기준 33.1%, 건설 16.0%로 쏠림 현상이 큼
 - 특히, 한국은 UN 등이 서비스 수출 확대의 동력으로 꼽는 IT 기술²⁾이 접목되는 ICT기반 서비스³⁾ 수출 비중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음
 - 한국의 ICT기반 서비스 수출 비중은 2014년 29.7%로 OECD 평균인 43.3%비해 13.6%p 낮았음
 - 이는 한국의 통신컴퓨터정보, 금융 서비스 수출 비중이 각각 2.7%, 1.3%로 OECD 평균인 8.9%, 6.5%보다 낮기 때문임

< 한국과 OECD 국가의 서비스 수출 항목별 구성 비중 변화 >

항목	2006		2010		2014	
	OECD	한국	OECD	한국	OECD	한국
가공	2.9	3.8	3.4	2.8	3.3	3.3
운송	25.5	45.5	24.8	47.1	22.5	33.1
여행	28.3	10.0	27.0	12.4	26.6	17.0
건설	2.4	12.2	2.4	14.4	2.5	16.0
보험	2.3	0.5	2.4	0.6	2.5	0.6
금융	8.7	2.4	6.7	2.0	6.5	1.3
통신컴퓨터정보	5.2	1.3	8.1	1.2	8.9	2.7
지식재산권 사용료	4.1	3.7	4.3	3.8	4.5	4.8
기타사업	15.7	17.6	18.4	14.0	20.0	19.3
개인문화여가	1.4	0.4	1.0	0.5	1.2	0.9
정부	1.4	2.6	1.0	1.2	0.9	1.0

자료 : UNCTAD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 ICT기반 서비스 수출 비중 >



자료 : UNCTAD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2) M. Borga 외, Trends in digitally-enabled trade in services, 2012년 9월, BEA. 본 보고서에서 여행 비용 하락, IT 기술 발전과 네트워크화 진전 등이 서비스 수출 확대 원인으로 지적됨.
 3) UNCTAD(Information Economy Report 2007-2008, P.120) 구분에 따르면, ICT기반 서비스(ICT Enabled Services) 수출은 IT 기술을 수출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통신컴퓨터정보, 보험, 금융, 지식재산권 사용료, 기타사업서비스 및 개인문화여가서비스 항목이 포함.

⑤ 경쟁력

○ 한국의 서비스 수출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

1)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 서비스 무역에서 한국은 건설, 운송, 정부 서비스는 비교 우위가 지속되고 통신컴퓨터정보와 개인문화여가 서비스도 최근 5년간 경쟁력이 상승
 - 한국 서비스 무역의 무역특화지수(TSI)를 계산해 보면, 건설은 최근 5년('10~'14년)간 평균 0.065, 운송 0.036로 비교 우위를 보임
 - 또한, 통신컴퓨터정보와 개인문화여가 서비스도 2006~2010년은 무역특화지수가 0보다 낮아 비교 열위였지만, 최근 5년('10~'14년)은 지수가 소폭 상승하면서 비교 열위에서 중립으로 개선됨
- 그러나 가공, 여행 서비스 등은 비교 열위가 지속되고 금융 서비스도 수입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10~'14년)간 경쟁력이 하락
 - 한국은 서비스 무역 중 가공, 여행, 보험, 지식재산권 사용료, 기타사업 서비스의 무역특화지수가 2006년 이후 0보다 낮게 유지되면서 비교 열위가 지속
 - 또한, 금융 서비스의 무역특화지수도 2006~2010년 평균 0.001에서 최근 5년('10~'14년)은 -0.002로 경쟁력이 하락

< 한국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

	'06~'10 평균	'10~'14 평균
가공	-0.019	-0.029
운송	0.033	0.036
여행	-0.067	-0.035
건설	0.057	0.065
보험	-0.003	-0.001
금융	0.001	-0.002
통신컴퓨터정보	-0.003	0.000
지식재산권 사용료	-0.024	-0.024
기타사업	-0.049	-0.057
개인문화여가	-0.001	0.000
정부	0.003	0.001

자료 : UNCTAD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주 : 무역특화지수가 0보다 크면 비교 우위이며 0보다 작으면 비교 열위로 해석.

< 무역특화지수로 구분해 본 한국 서비스 무역의 경쟁력 변화 >

비교우위 지속	비교열위 → 중립
✓운송 서비스 ✓건설 서비스 ✓정부 서비스	✓통신컴퓨터정보 서비스 ✓개인문화여가 서비스
✓금융 서비스	✓가공 서비스 ✓여행 서비스 ✓보험 서비스 ✓지식재산권 사용료 ✓기타사업 서비스
비교우위 → 비교열위	비교열위 지속

자료 : UNCTAD 자료를 활용·계산하여 정리.

2)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 수출 경쟁력만을 따로 조사한 현시비교우위(RCA) 분석 결과도 OECD 대비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 운송, 가공 서비스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2006~2010년과 최근 5년('10~'14년)간 평균이 모두 1보다 커 비교 우위가 지속
 - 그러나 보험, 금융, 통신컴퓨터정보, 지식재산권사용료, 기타사업 및 정부 서비스 등 8개 수출 항목은 두 기간 모두 1보다 낮아 비교 열위가 지속
- 한편, 최근 5년간 가공, 운송 서비스의 경쟁력은 소폭 하락했고 금융, 기타사업, 정부 서비스도 경쟁 열위가 심화됨
 - 항목별로 경쟁력 변화를 살펴보면, 가공과 운송 서비스는 비교 우위이나 지수가 최근 5년('10~'14년) 간 소폭 하락하며 수출 경쟁력이 다소 악화됨
 - 또한, 2006~2010년 평균 현시비교우위지수가 금융 0.22, 기타사업 0.76, 정부 서비스 0.97에서 최근 5년('10~'14년)은 각각 0.17, 0.74, 0.73으로 하락하면서 경쟁 열위가 심화됨

< 한국 서비스 수출의 항목별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

	'06~'10 평균	'10~'14 평균
가공	1.08	1.00
운송	2.23	2.05
여행	0.51	0.66
건설	7.05	8.38
보험	0.17	0.19
금융	0.22	0.17
통신컴퓨터정보	0.14	0.20
지식재산권사용료	0.44	0.52
기타사업	0.76	0.74
개인문화여가	0.51	0.69
정부	0.97	0.73

자료 : UNCTAD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주 : RCA가 1보다 크면 수출경쟁력 우위, 1보다 작으면 수출경쟁력 열위로 판단.

< 현시비교우위 지수로 구분해 본 한국 서비스 수출의 경쟁력 변화 >

비교	우위
확대	건설 서비스
하락	가공 서비스 운송 서비스
비교	열위
개선	여행 서비스 보험 서비스 통신컴퓨터정보 서비스 지식재산권 사용료 서비스 개인문화여가 서비스
	금융 서비스 기타사업 서비스 정부 서비스

자료 : UNCTAD 자료를 활용·계산하여 정리.
 주 : 하락과 악화는 '06~'10년 현시비교우위 지수가 최근 5년('10~'14년)에 하락한 경우임.

3. 시사점

○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OECD 국가들과 같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이 시급함**

- 첫째, 기존 제조업 중심의 차별적 지원 정책 개선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균형 성장을 꾀해야 한다.
 -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적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요 서비스업에 대한 조속한 현안 해결을 통해 국내 서비스업의 글로벌 경쟁 기반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함
 -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IT 인프라를 서비스에 접목하여 수출 동력으로 꼽히는 ICT기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함
- 둘째, 서비스업 육성 정책도 부문별로 차별화함으로써 서비스업 내 부문 간 균형 성장을 촉진시켜야 한다.
 - OECD 국가들에 비해 비교 열위인 금융, 기타사업 서비스 등의 국내외 시장을 꾸준히 확대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총 수출 중 서비스 수출 비중도 OECD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별로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셋째, ‘스마트 서비스’와 같이 제조와 서비스 연계성 강화, 신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 등 수출 확대 전략도 필요하다.
 - 최근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도 제조와 서비스를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결합하는 ‘스마트 서비스(Smart Service)’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음
 - 우리도 꾸준한 수출 성장을 위해서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함. 이에 ‘산업융합화 촉진’ 등 제조+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산업간·기술간 연계성도 높여나가야 함
 - 특히, 스마트 데이터(Smart Data), 핀테크(Fintech), IoT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함

- 넷째,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하고,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유인책도 강화하여 내수 시장을 키움으로써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으로 융합신산업의 시장화와 비즈니스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후 필요 사항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전환⁴⁾
 - 보건·의료서비스, 융합 관광서비스(의료+관광, 교육+관광 등) 등 유망서비스업에 투자 유인책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을 확대

- 다섯째,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다자 및 양자간 FTA 활용도도 제고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다자간 서비스 협정(TISA)과 미국 등 양자간 FTA에도 서비스 협정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국내 서비스 시장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경쟁국의 서비스 무역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협정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야 함
 - 아울러, 상품 무역에 비해서는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적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서 서비스 및 투자관련 무역 장벽이 가장 많이 도입⁵⁾된 만큼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동북아연구실 조호정 연구위원 (2072-6217, chjss@hri.co.kr)
이부형 이사대우 (2072-6306, leebuh@hri.co.kr)

4) 2015년 3월 기준, 제조업 규제수는 381개, 서비스 산업 규제수는 4,086개로 제조업의 10배 수준에 달함. 이 가운데 정부가 집중 육성 계획인 7대 유망 서비스업(금융·보험업, 운송·창고업, 의료·보건·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 출판·방송·정보통신, 관광·문화·학술·오락 등) 관련 규제가 62.3%임.

5) EU가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 G20 국가를 포함한 35개국에서 발동한 보호무역조치는 총 871건이며 그 중 서비스 및 투자관련 보호무역조치는 83건으로 약 10%를 차지함. 국가별 서비스 및 투자관련 보호무역조치를 보면, 인도네시아 21건, 아르헨티나 12건, 중국 11건, 러시아 6건순임.

부록 1. 한국 서비스 무역의 경쟁력을 평가한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 무역특화지수 계산

$$i \text{ 산업의 무역특화지수} = \frac{\text{한국 } i\text{산업의 수출액} / \text{한국 서비스산업 전체 수출액}}{\text{한국 서비스 수출액} + \text{서비스 수입액}}$$

- 무역특화지수 > 0 비교 우위, 지수 < 0 비교 열위로 해석

- 무역특화지수가 0 이상 1 이하이면 그 제품이나 산업이 무역흑자를 기록해 국제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이며 0 이하 -1에 가까울수록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고 수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

< 한국 서비스 수출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

항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6~'10년 평균	'10~'14년 평균
가공	-0.010	-0.013	-0.017	-0.029	-0.026	-0.036	-0.031	-0.027	-0.023	-0.019	-0.029
운송	-0.103	-0.101	-0.049	-0.034	-0.047	-0.038	-0.034	-0.033	-0.024	-0.067	-0.035
여행	-0.005	-0.004	-0.001	-0.003	-0.002	-0.001	-0.001	-0.001	-0.001	-0.003	-0.001
건설	0.005	0.004	0.002	-0.006	-0.001	-0.001	-0.002	-0.004	-0.001	0.001	-0.002
보험	-0.021	-0.022	-0.018	-0.026	-0.033	-0.016	-0.022	-0.026	-0.024	-0.024	-0.024
금융	-0.033	-0.025	-0.048	-0.071	-0.068	-0.063	-0.060	-0.049	-0.048	-0.049	-0.057
통신컴퓨터 정보	0.017	0.026	0.040	0.031	0.048	0.033	0.048	0.034	0.017	0.033	0.036
지식재산권 사용료	0.045	0.050	0.059	0.076	0.054	0.060	0.077	0.073	0.062	0.057	0.065
기타사업	-0.004	-0.002	-0.002	-0.003	-0.002	-0.001	0.000	0.002	0.004	-0.003	0.000
개인문화 여가	-0.001	-0.001	-0.001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정부	0.005	0.004	0.001	0.003	0.000	0.000	0.001	0.001	0.000	0.003	0.001

자료 : UNCTAD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부록 2. 한국 서비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평가한 현시비교우위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지수

- RCA지수는 Vollrath(1991)⁶⁾의 지수를 활용

i 산업의 현시비교우위(RCA)지수= (한국 i산업의 수출액/한국 서비스산업 전체 수출액)/(OECD i산업의 수출액/OECD 서비스산업 전체 수출액)

- RCA 지수>1 수출 비교 우위, 지수 <1 수출 비교 열위로 해석

< 한국 서비스 수출의 현시비교우위지수 추이 >

항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6~'10년 평균	'10~'14년 평균
가공	1.46	1.20	0.91	0.87	0.96	0.96	0.99	0.98	1.09	1.08	1.00
운송	2.21	2.26	2.26	2.10	2.34	2.10	2.08	1.94	1.82	2.23	2.05
여행	0.45	0.40	0.50	0.63	0.58	0.65	0.62	0.66	0.80	0.51	0.66
건설	6.49	6.76	6.58	8.29	7.14	8.51	8.95	9.44	7.84	7.05	8.38
보험	0.15	0.19	0.17	0.14	0.20	0.17	0.15	0.20	0.20	0.17	0.19
금융	0.22	0.25	0.23	0.21	0.20	0.20	0.18	0.13	0.13	0.22	0.17
통신컴퓨터 정보	0.47	0.33	0.36	0.56	0.46	0.57	0.45	0.51	0.59	0.44	0.52
지식재산권 사용료	0.16	0.16	0.13	0.14	0.14	0.17	0.16	0.23	0.29	0.14	0.20
기타사업	0.88	0.89	0.70	0.66	0.66	0.70	0.72	0.78	0.85	0.76	0.74
개인문화 여가	0.44	0.45	0.46	0.63	0.55	0.64	0.69	0.67	0.89	0.51	0.69
정부	1.28	1.19	0.81	0.84	0.72	0.78	0.71	0.74	0.69	0.97	0.73

자료 : UNCTAD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6) Vollrath, T., "A theoretical evaluation of alternative trade intensity measures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30, 1991.